

애플, ‘아이튠즈’ 서비스 종료

음악·동영상·팟캐스트 등 유통채널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애플 뮤직’ ‘애플 팟캐스트’ ‘애플 TV 앱’ 3개 개별 앱 대체

음악, 동영상, 팟캐스트 등 애플의 음악·영상 유통채널인 ‘아이튠즈’가 18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올 가을 도입될 애플의 모바일 운영체제(OS) iOS 13에는 검은색 바탕화면의 ‘다크 모드’가 도입되는 등 기능이 강화된다.

애플은 최근(현지시간) 미국 샌너제이 매키너리 컨벤션센터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위한 연례 행사인 ‘세계 개발자 대회 2019’(WWDC 19)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WWDC는 애플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을 상대로 아이폰·아이패드용 운영체제(OS) 등의 차기 버전에 담긴 업데이트 내용을 미리 공개하는 자리다.

애플은 ‘아이튠즈’를 18년 만에 없애고 이를 ‘애플 뮤직’, ‘애플 팟캐스트’, ‘애플 TV 앱’ 등 3개의 개별 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입이 유력하게 점쳐졌던 ‘다크

모드’가 실제 도입된다. 다크모드는 원래 야간 등 어두운 환경에서 보기 좋게 최적화된 시각 모드로, 배경이 흰색 대신 검은 색으로 바뀐 일종의 반전 화면이다.

아이폰 사용자끼리 주고받는 문자메시지에는 자신의 이름과 사진이나 이모티콘을 보여줄 수 있는 프로필 기능을 새로 도입한다.

인물 사진을 찍을 때 조도를 조정해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듯한 효과를 내도록 하고, 사진 편집 기능도 크게 강화한다.

또 사진 앨범에는 기계학습(머신러닝)을 이용해 아이 생일 같은 연례행사에 찍힌 사진을 연도별로 정리해 보여주거나 여러 장의 비슷한 사진 중 가장 잘 찍힌 사진을 찾아 보여주는 기능도 도입된다.

무선 이어폰인 에어팟 사용자는 앞으로 에어팟을 끼고 있을 때 메시지가 오면 시리가 이를 읽어준다. 또 시리를 통해 음성으로 곧장 답장을 보낼 수 있다. 이 기능은

제3자 앱에도 적용된다.

이 밖에 전반적인 속도도 빨라진다. 앱 실행 속도를 2배가량으로 높이고, 페이스 아이드로 잠금 해제하는 속도도 30% 더 높아진다고 애플은 설명했다.

그동안 아이폰과 똑같은 OS를 써오던 아이패드는 독자 OS ‘아이패드OS’를 갖게 된다.

크레이그 페더리 애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수석부사장은 “아이패드에는 큰 화면과 화면 분할(split view) 등으로 독창적인 기기가 됐다”며 “독자 OS를 인정할 시점이 왔다는 걸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아이패드OS는 큰 화면의 장점을 극대화해 멀티태스킹 기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화면 분할을 통해 메모나 메일 등에서 두 개의 화면을 띄워놓고 볼 수 있다. 메모나 메일 작성 중 다른 창을 띄운 뒤 거기서 사진이나 이미지를 끌어와 작성하던 메모·메일에 첨부할 수도 있다.

아이패드에는 또 앞으로 외부 저장장치인 USB 드라이브나 SD 카드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포트도 도입한다고 애플은 밝혔다.

/김한영 기자 young@연합뉴스

세계 최대 게임쇼 ‘E3 2019’ 열렸다

미국 LA컨벤션센터

200여사 참가 신작 등 발표

세계 최대 게임쇼 ‘E3 2019’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컨벤션센터에서 지난 11일 개막했다.

13일까지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닌텐도·베데스다·유비소프트·스퀘어에닉스·EA·에픽게임즈 등 200여개사가 참가해 신작 게임과 신규 서비스 등을 대거 발표했다. 행사 참관을 위해 사전에 등록한 업계 관계자·미디어·일반 관람객 등의 국적만 100개가 넘는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등 대형 IT 업체는 행사 개막 직전에 따로 발표회를 열고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 계획을 각각 발표하며 새로운 게임 시장의 개막을 예고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펠어비스가 신규 게임·서비스 설명회인 ‘인투 디 어비스’를 개최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정경인 대표가 참석해 주력 게임인 ‘검은사막’의 콘솔·모바일 버전 출시 계획 등을 발표한다.

넷마블은 출시를 앞둔 기대작 ‘BTS 월드’의 비공식 시연회를 연다.

이날 오전 문을 연 전시장에는 참가 업체 중 최대 규모로 꾸려진 일본 닌텐도의



‘E3 2019’가 열린 미국 로스앤젤레스 LA컨벤션센터.

부스가 눈길을 끌었다. 스위치용 신작 및 기존 인기작이 시연된 닌텐도의 부스는 이를 보러 모여든 관람객들로 붐볐다.

개막에 앞서 유튜브를 통해 진행한 신작 발표회에서 닌텐도는 ‘젤다의 전설: 꿈꾸는 섬’을 비롯해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의 속편, ‘성검전설3’, ‘위쳐3’, ‘모여라! 동물의 숲’ 등 신규 게임을 대거 공개했다. 다만, 관심을 모았던 스위치 후속기기는 발표되지 않았다.

닌텐도 바로 옆에 설치된 세가의 부스는

2020 도쿄 올림픽을 노린 스포츠 게임 ‘마리오와 소닉의 올림픽’ 등으로 게이머들의 발길을 끌었다.

가상현실(VR)과 증강현실(AR)도 여전히 게임업계의 관심사다. 오쿨러스는 VR기술이 적용된 8개 게임을 시연했다.

미국 통신업체 버라이즌은 5G 통신망을 활용한 VR 및 멀티플레이어 게임 기술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전시와 별도로 게임 관련 강연회도 줄줄이 진행된다.

/연합뉴스

칠레, 직경 15m 전파망원경 설치



오는 7월 2일 남미 칠레에서 개기일식이 관측될 것으로 예고됐다. 칠레 산티아고에서 600km거리에 있는 유럽남방천문대(ESO)에 설치된 직경 15m 전파망원경이 주목받고 있다.

/연합뉴스

허블 은하 분류법 ‘흔들’

시민과학자 참여로 오류 확인 … ‘100년 이론’ 바뀔 처지

우주를 구성하는 은하는 미국의 저명 천문학자인 에드윈 허블이 1927년에 제시한 분류 기준을 따르고 있다. 당시 관측된 은하를 모양에 따라 분류했는데 두 갈래로 된 소리굽쇠를 닮았다고 해서 ‘허블 튜닝 포크(Hubble Tuning Fork)’로도 불린다.

100년 가까이 교과서처럼 이용돼온 은하 분류법이 시민과학자들의 참여로 오류가 확인되고 바뀔 처지에 놓였다.

영국 왕립천문학회(RAS)에 따르면 미국 해버포드 칼리지의 카렌 마스터스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시민과학자 참여 프로그램인 ‘갤럭시 Zoo(Galaxy Zoo)’ 자료를 활용해 허블 분류법의 오류를 밝히는 연구결과를 학회 월보(MNRAS)에 발표했다.

허블은 은하 중앙의 별이 모여있는 팽

대부(bulge) 크기와 나선 팔이 감긴 정도 등 두 개의 특성을 갖고 은하를 분류하면서 두 특성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했지만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이 골자다.

연구팀은 수십만명의 시민과학자가 참여해 특성별로 분류한 6천여개의 은하를 통해 이런 결론을 얻었다. 허블 박사가 활동하던 시기에는 가까운 곳에 있는 밝은 은하만 관측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세계 각지에서 관측된 은하 이미지를 시민과학자들이 특성별로 분류해 놓음으로써 당시보다 15배나 많은 은하 샘플을 갖고 연구가 진행될 수 있었다고 한다.

허블 박사는 허블 튜닝 포크 외에도 은하의 후퇴(後退)속도가 은하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허블의 법칙’을 발견해 우주팽창설의 기초를 세우는 등 천문학

계에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 미국항공우주국(NASA)은 그의 업적을 기려 우주망원경에 그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허블 분류법은 은하를 크게 나선은하와 타원은하, 불규칙 은하로 구분하고 있다. 은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나선은하로 모양에 따라 정상 나선은하(S)와 막대 나선은하(SB)로 나누고 나선 팔이 휘감긴 정도에 따라 a-c 3가지 형으로 세분했다. 타원(elliptical) 은하는 편평도에 따라 E0-E7으로 구분해 전체적으로 소리굽쇠 모양을 띠었다.

나선 팔의 형성과 관련해, 허블 박사는 팽대부가 클수록 나선팔이 더 강하게 감기는 경향이 있다고 밝힘으로써 밀도와(density wave) 이론에 힘을 실어줬으며 가장 유력한 모델이 돼왔다.

그러나 적어도 일부 나선 팔은 중력에 묶여 서로 회전하는 별들로 구성된 고정된 구조물이라는 새로운 이론이 제기되었으며 이는 나선은하에 관한 첨단 컴퓨터 모델을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광주과학관, 필 사이언스 포럼 개최

23일 ‘글로벌 환경이슈와 과학문화’ 주제

국립광주과학관(관장 김선아)이 오는 23일 오후 2시, 국립광주과학관 상상을에서 ‘글로벌 환경이슈와 과학문화’를 주제로 제9회 필 사이언스 포럼을 개최한

다.

이번 포럼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각종 질병 등 점점 가속화되는 환경이슈들이 우리 삶과 미래에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지를 살핀다. 이에 객원진 가천대 교수(전 경기과학기술진흥원장)가 주제발표를 한다.

필 사이언스 강연은 과학을 느끼고(Feel) 사랑하는(Phil)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국립광주과학관 과학문화전시실(062-960-6121)로 하면 된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부동산 투자 !

(주)오천과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

상담문의. 최선규 H.010-3605-5000